Hanwha 리서치센터 | 2026년 1월 30일 |

2월의 플레이북

▶ 기업분석팀 sohye.kim@hanwha.com 3772-7404

업종별 02월의 플레이

업종	투자 포인트	Top Picks	담당자
▶ IT			
2차 전지	- 2차전지 업종 실적은 4Q25 실적 시즌을 지나며 북미 EV 수요 우려는 해소 국면. 향후 ESS와 리튬 가격이 반등의 열쇠가 될 것이나, 실적은 V자 반등보다 L자형 흐름이 유력 - 최근 주가 상승은 펀더멘털 개선보다 국내 수급 강세에 기인. 하방 압력 제한적이나, 추세적 상승도 부담. 실적 방어 가능하고 ESS·LFP·메탈 가격 모멘텀 보유한 기업 선별 접근 추천	엘앤에프	이용욱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인터넷 /게임	-인터넷: STO 및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인프라 관련 신사업의 움직임이 밸류에이션을 상방으로 열어줄 것으로 예상 - 디지털자산 기본법 법제화 뉴스플로우에 따라 단기 변동성 지속될 것 -게임: 순환매로 인한 주가 반등세가 크지만, 1) 올해 실적, 2) 신작 모멘텀으로 선별	카카오	김소혜
엔터	- 실적과 모멘텀이 함께 받쳐주는 종목에 집중 - 하이브 올해 연간 영업이익 6천억 무난히 달성 전망. BTS 레버리지 효과(매출액 증대에 따른 고정성 판관비 부담 완화)에 주목 - 하이브 제외 3사의 경우 15배 부근에서 Trading Buy 전략 유효. 에스엠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질 것	하이브	박수영
▶ 에너지/소재			
에너지 /화학	- 정유 업황은 정제마진이 당분간 $10~13/b 수준에서 강보합세 예상. 2026년부터 수요 증가세가 공급 증가분을 상회하는 사이클 진입했고, 인도/중국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 우위도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기대 - 화학 업황은 중국발 구조조정 기대로 스프레드 반등했으나, 여전히 시장 내 공급 과잉과 전방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상존. 구조조정 현실화 여부와 스프레드 회복 추이 관찰 필요	S-Oil	이용욱
철강	- 후판·열연 반덤핑 관세는 우회덤핑 차단과 정품 시장 회복을 통해 시장 구조 재편과 가격 상승을 견인할 전망. 반덤핑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 2026년 본격화 기대 - 글로벌 우주·항공·방산 산업은 스페이스X의 발사 횟수 증가와 항공 엔진 유지보수(MRO) 수요 폭증이 맞물려, 핵심 소재인 특수합금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공급 부족 국면에 진입	현대제철 세아베스틸지주	권지우
▶ 산업재			
기계	- 건설기계: 최근 금광 마이닝 수요 등으로 인한 아프리카향 수출 증가세 확인되는 중 - 우주항공: 국방 관련 글로벌 고해상도 위성 영상 수요 증가세 뚜렷 - 방위산업: 러-우 휴전 협상 난항, 상반기 중동 대형 수주 모멘텀 대기	HD건설기계 쎄트렉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배성조
조선	- 고선가 물량 매출 증가로 인한 가파른 실적 개선세 '26년에도 지속 -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고부가가치 선박 선별 수주로 수주잔고 3년치 유지 전망 - 한미 조선업 협력 및 해외 잠수함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특수선 모멘텀 발생에 주목	한화오션	배성조
건설	- 불확실한 많은 것들 중 가장 확실한 긍정적 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주택 업황의 확실한 변화가 감지되기 전까지는 원전 플레이에 집중하자는 전략	현대건설 삼성물산	송유림

업종	투자 포인트	Top Picks	담당자
▶ 산업재			
유틸리티	- 2026년에는 K-원전의 추가적인 확대 가시화 전망 - K-원전의 확장성에 따라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연동될 전망	한국전력 한전기술	송유림
항공	- 수요는 여전히 증가세가 맞으나 글로벌 항공사들의 공급량도 꺾이지 않고 확대 중 - 높아진 환율은 저유가 구간의 이점을 희석시킬 것 -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가져가기 보다, 미뤄뒀던 항공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별 효율화 정도에 주목할 필요 있음 - 완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주식 관련 이벤트는 주가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대한항공	박수영
▶ 금융			
은행	- 2025년 결산 실적발표 시 결정될 자사주 매입 규모와 향후 환원 경로에 대한 회사의 톤, 일부 은행지주의 감액배당 결의 여부를 눈 여겨 볼 시기 -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2026년 순이자마진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익 컨센서스가 한 번 더 상향될 것으로 기대	KB금융 우리금융지주	김도하
보험	- 업종의 자체적인 펀더멘털 개선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우나, 외부적인 제도 변화에 의한 수혜를 중심으로 접근 - 관리급여 신설에 따른 실손 손해액 감소, 해약준비금 완화에 따른 배당 재개 가능성,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 우려 축소 등 기대하던 외부 요소들의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로 판단	현대해상	김도하
▶ 경기소비재 / 필수소비재			
자동차	- CES2026에서 공개된 Atlas 설계/디자인 완성도 확인으로 상용화 기대감이 증폭되며 1월 현대차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부품업종 주가는 긍정적 흐름을 지속 - 하반기 PoC센터 가동, AI 팩토리 착공 등 연중 AI/로보틱스 확장 모멘텀은 계속될 것 - 자동차 수요 저성장 속 xEV 신차 출시 및 전장/전동화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부품 밸류체인은 본업 경쟁력 이외에 SDV/로보틱스 기회를 확대해 나갈 전망	현대모비스 현대차	김성래
음식료	- 2025년 4분기 실적은 대체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 - 내수주 대부분 원화약세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 우려 -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선호	삼양식품	한유정
화장품	- 화장품 전체 수출은 동월 최고치 경신 전망 - 투자심리는 상고하저를 기대하겠지만, 2025년 상반기 베이스가 유독 높았던 점을 감안할 필요 - 제조사보다는 대형브랜드사 선호	에이피알	한유정
유통	- 금리 인하 사이클,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내수 회복 기대 -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에 따른 인바운드 소비 확대 전망 - 홈플러스 M&A 완료 이후 유통업종 구조조정 모멘텀 확대 전망	롯데쇼핑	이진협
의류	- 금리 인하 사이클,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내수 회복 기대 - 26년 ~ 27년 K인디 패션 브랜드, 플랫폼 상장이 이어지면서, K인디 패션 브랜드의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 확대 전망	미스토홀딩스	이진협
레저	- 외인카지노 3사 모두 올해 강한 이익 성장 예상 - 연말 연초 타 섹터로의 수급 쏠림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높아진 상황 - Mass와 VIP 불문하고 강한 인바운드 확대에 힘입은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 - 상대적 비수기로 꼽히는 1분기 월별 실적 서프라이즈에 주목할 필요 있으며, 성수기로 분류되는 2-3분기 실적은 예상을 상회할 것	롯데관광개발	박수영

한화 기업분석팀 Top Picks

종목	시가총액 (억 원)	투자포인트	담당자
엘앤에프 (066970)	52,593	- 미국향 노출이 적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량과 가동률을 유지. 2026~2027 년 출하량 전망에도 변화가 없음 - 1) '26 년 하반기 LFP 양산 본격화, 2) '27 년 NCMA 고객 다변화, 3) 향후 미국향 NCMA 추가 수주 기대감 유효 - 여전히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 또한 높다고 판단 - 동사의 2026 년 출하량은 9.6 만 톤(NCM 8.7 만 톤, LFP 0.9 만 톤)으로 YoY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용욱
카카오 (035720)	273,462	-본업 광고 매출 성장에 기반한 이익 회복은 올해 가장 탄력적일 것. DA 성장률은 올해 분기별로 가속화 예상 -올해 순차적인 AI 서비스 출시로 인해 신규 광고 상품 라인업 증대될 전망 -현 주가는 과거 멀티플 밴드 하단에 근접. 낮은 밸류는 아니지만 업종 내 주가 흐름은 가장 소외되어 있음	김소혜
하이브 (352820)	161,316	- 올해 연간 영업이익 6 천억원 무난히 달성 전망. BTS 레버리지 효과(직/간접을 아우르는 매출액 증대에 따른 고정성 판관비 부담 완화)에 주목	박수영
S-Oil (010950)	112,921	- 4 분기 실적은 정제마진이 개선으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한 것으로 추정. 2026 년에도 정제마진 강세 예상 - 2026 년 원유 공급 확대에 따른 유가 하락 우려는 있으나, 1) 정제마진 강세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 2) 글로벌 화학 설비 구조조정 국면에서 샤힌 프로젝트의 실적 기여 확대 기대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충분하다고 판단	이용욱
현대제철 (004020)	42,102	- 3 세대 자동차 강판 개발 등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노력 병행 - 일본 및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과 중국의 철강 감산 기대로 추가적인 이익 개선이 전망됨 - 중국 철강 감산 및 K-Steel 법 등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Top Pick 제시	권지우
세아베스틸지주 (001430)	26,215	- 미국 자회사 SST 의 특수합금 공장 가동 임박 및 항공방산 소재 증설 효과를 바탕으로, 단순 철강사를 넘어 글로벌 우주항공·방산 소재 기업으로의 구조적 재평가 국면에 진입 - 본업인 특수강 부문의 수익성 회복과 더불어 2027 년 우주항공 신사업의 실적 퀀텀 점프가 기대되는 핵심 플레이어로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89,000 원을 신규 제시	권지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	670,324	- 국내 방산 업체 중 가장 다변화된 수출 파이프라인 보유. 유상증자 재원 통해 해외 현지생산 능력 강화 중 - 유럽뿐 아니라 중동, 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수출 수주 기대. 특히, 사우디 JV 및 스페인 K9 자주포 사업 주목 - 미국 자주포 현대화 사업 참여 및 미국 장약 공장 증설 추진 등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진출 모멘텀 보유	배성조
한화오션 (042660)	434,801	- LNG 선 발주 회복 기대하며 고선가 중심 포트폴리오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 - 캐나다 잠수함 수주 성과가 가시화되는 구간(3 월 최종 제안서 제출)으로, 대규모 방산 계약 기대감 상승 - MASGA 관련 한미 협력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 받을 예정이며 현지 필리조선소 보유가 강점으로 작용할 것	배성조
현대건설 (000720)	121,044	- '25 년 op 가이던스 정정으로 단기 실적 노이즈는 마무리됐으며, 향후 2~3 년 실적 우상향 뚜렷할 것으로 추정 - 원전 수주 파이프라인 확대되는 구간으로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업종 내 선호주 의견 유지	송유림
현대해상 (001450)	25,077	- 펀더멘털 부진이 계속되는 보험업종에 투자한다면, 펀더멘털이 아닌 외부 재료에 의한 기대 요인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 - 이 관점에서 현대해상은 실손 개선, 배당 재개 기대, 자본 우려 축소 등의 교집합으로써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됨 - 12mf 2 배의 현 주가에서 하방 리스크는 제한되고 제도 개선에 의한 상승여력은 열려 있다고 판단	김도하
현대모비스 (012330)	414,648	- 2025 년 관세 영향에도 불구 3 년만에 전 부문 흑자 기록. TSR 32.8%로 주주환원도 목표 대비 상회. - 올해 Non-Captive 매출 본격화와 유럽 BEV(EV2, 아이오닉 3 등) 등 전동화 신차효과로 모듈/부품 성장 기대 - 로봇 액추에이터 현장 적용/검증 활성화로 로봇 부품사업에 대한 가시성도 높아질 전망	김성래
현대차 (005380)	1,081,121	- 보수적인 '26 년 가이던스로 실적 눈높이는 하향. 그러나, BD 아틀라스 상용화를 위한 양산개발 및 검증(PoC) 추진 등 로보틱스 밸류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며 주가 상승 지속. - SDV Pace Car 공개, AI Factory 착공 및 모셔널 로보택시 상용화 등 연중 미래 투자 결실 가시화되는 점에 주목	김성래
삼양식품 (003230)	91,601	- 밀양 2 공장 Ramp-up, 기존 공장 생산 시간 확대, 노후 라인 교체 및 자동화 설비 투입, 중국 공장 조기 가동 예상 - 미국 Mainstream, 클럽/CVS 등의 채널, 캐나다, 중남미 신규 채널 입점도 확대 예정	한유정
에이피알 (278470)	103,496	- 2/4 에 발표될 2025 년 4 분기 실적과 2026 년 가이던스에 귀추가 주목됨 - 2026 년은 미국 오프라인 채널 확장과 유럽 매출 확대가 성장을 주도할 전망	한유정
롯데쇼핑 (023530)	22,348	- 내수 회복에 따른 백화점 매출 반등 기대 -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따른 면세점과 백화점 간 시너지를 통한 차별화된 외국인 매출 성장 전망 - 롯데마트, 홈플러스 구조조정 수혜	이진협
미스토홀딩스 (081660)	24,130	- 휠라 브랜드력 국내를 중심으로 아시아권에서 확장 중 - K 인디 브랜드 중화권 유통사업 확장에 대한 시장 관심 확대 전망 - 미국 법인 구조조정에 따른 수익성 반등 기대	이진협
롯데관광개발 (032350)	18,612	- 무난한 4 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되며, 상대적 비수기로 꼽히는 1 분기 월별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꾸준한 모객력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 및 순이익 레버리지 효과에 주목할 필요 있음	박수영

주: 시가총액은 01월 29일 종가 기준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 년 1 월 30 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됐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업분석팀)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은 당사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
쎄트렉아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외 4 인)가 36.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 년 12 월 31 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87.0%	13.0%	0.0%	100.0%